

# 하나님의 법: 1부: 이방인들을 향한 마귀의 거대한 계획

## 사탄의 실패와 새로운 전략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지 몇 년 후, 사탄은 이방인들을 향한 장기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실패했고(마태복음 4:8-9),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려는 모든 희망은 부활로 인해 영원히 산산조각났습니다(사도행전 2:24).

뱀에게 남은 것은 에덴 이후로 항상 해왔던 일을 이방인들 사이에서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 인류를 설득하여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창세기 3:4-5).

## 계획의 두 가지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1.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그들의 신앙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해야 했습니다 — 인류 창조 때부터 존재해 온 신앙, 예수님의 가족, 친구들, 사도들, 제자들이 지켰던 신앙을 포기하게 해야 했습니다.

2. 구원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논리를 만들어, 이방인들에게는 태초부터 이해되어 왔던 구원과는 다른 구원이 제시되었다고 믿게 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구원 계획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이방인들을 위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종교에는 새로운 이름, 전통, 교리가 갖추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교리는, 메시아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귀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이방인들을 예수님 — 이스라엘의 메시아 — 이 전한 믿음과 순종의 메시지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거짓 구원 계획을 고안하게 했습니다.

## 이스라엘과의 거리 두기

###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는 도전

모든 운동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추종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시까지 메시아적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법은, 새롭게 형성된 교회 안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던 이방인 무리에게 도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 **제칠일 준수**, 특정 **음식 금지**와 같은 계명들은 운동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점차 이방인 집단에 맞추어 양보하기 시작했으며, 메시아의 오심이 비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느슨하게 했다는 거짓 주장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그러나 이 주장은 **구약성경**이나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출애굽기 12:49).

## 유대인들의 반응

한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일부 원래의 사도들을 포함한 목격자들의 존재로 인해 여전히 운동에 관심을 보이던 소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무가 점차 포기되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신실하게 지켰던 바로 그 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거리 두기의 결과

### 현재 예배의 상태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백만 명이 매주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자신을 위해 언약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예배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이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1:35-37).

##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에 연합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이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창세기 12:2-3).

예수님 자신도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요한복음 4:22).

## 이방인과 순종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방인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신 민족에게 주신 동일한 법을 따라야 합니다 —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지켰던 바로 그 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이방인이 직면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믿음과 용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이스라엘과 연합시키며, 아들에게 인도하여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계획이며, 이 계획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 위대한 사명

### 복음을 전파함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은 위대한 사명을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이방인 나라들에 전했습니다:

-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 바나바와 바울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로 갔습니다.
- 안드레는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로 갔습니다.
- 맛디아는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 변함없는 메시지

그들이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동일하며,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1. **믿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믿는 것.
2.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서는 최초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그들이 함께 지냈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요한복음 14:26).

명령은, 그들이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 구원과 순종

###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대인들에게 따로 준비된 다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도들에게 암시하신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순종 없는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

이방인들이 아버지의 거룩하고 영원한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며, 따라서 아무리 오래되었거나 대중적이라 해도 거짓입니다.